〈特別寄稿〉

中國 吉林省 園林學會 초청에 의한 방문·협의 및 기행보고

서울市立大 造景學科
教授 李 揆 穆

〈글 머리에〉

무덥던 8월5일부터 12일간 한양대 오휘영 교수, 청주대 장태현 교수, 한림조경의 이재근 상무와 본인이 조경분야에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여행하기 어려운 하절기를 택한 이유는 초청자인 吉林省 園林學會(우리나라의 조경학회와 같음) 측에서 연변조선족 자치주와 연길시를 꼭 방문하고 조경계획에 대한 자문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곳을 방문하려면 최소한 백두산 등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하절기에나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중국의 서남쪽에 편재해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배제하고,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니까 당초 15명 이상으로 예상되었던 방문단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꼭 갈 수 밖에 없었던 4인의 인원만 남게 되었다. 오교수는 IFLA극동지역담당 부회장이었고, 이상무는 그 사무국장일을 대행해서 보고 있는 실무책임자였으며, 장교수와 나는 조경학회를 대표하는 교수 자격이었다.

방문의 목적이 물론 관광에도 있었지만 오교수는 아직 IFLA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원림학회를 IFLA에 끌어들이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고, 필자는 차기 조경학회회장으로서 중국 및 그곳의 조선족(한국교포를 이곳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과 학문적 유대를 맺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사항들은 모두 달성되었고, 나아가 북한의 조경관계 인사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타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의 방문은 일단 성공한 셈이었다. 이미 이상무가 "환경과 조경" 잡지에 중국방문기를 쓰고 있지만 중복의 우려가 있으면서 또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남북한을 포함하는 한중학술대회에 우리 조경학회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에서이다.

〈IFLA와 관련된 협의내용〉

199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IFLA대회의 주제가 "조경에서의 전통과 창조"로 확정되고 여기서 한국·중국·일본의 전통조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이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가 여부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였다. 우리는 홍콩경우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의 원림학회와 접촉을 시도하였고, 중국 원림학회 부이사장(부학회장에 해당됨)이자 북경원림학회 이사장인 李嘉樂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중국 원림학회를 대표하여 금년 놀웨이에서 개최되는 IFLA대회에 중국의 가입의사를 전달하도록 오부회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오부회장은 정식서류를 받아 IFLA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논란중이던 대만의 IFLA가입자격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省에 해당되므로 "중국 대만(China Taiwan)" 이라는 명칭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식적 견해는 표명하였다. 이 가입에 관한 결정은 우리의 초청자인 길림성 원림학회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고 귀로에 만난 상해원림학회 이사장도 그 취지에 찬동하였다.

길림성원림학회의 따뜻한 환대를 받는 자리에서 1992년 한국 IFLA대회를 보다 알찬 대회로 만들기 위하여 1991년에 韓中日學術大會(중국에서는 中朝日學術大會라 함)를 중국 길림성에서 주관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하였고, 중국측에서는 이 취지에 호응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북한측 조경전문가를 참여시켜 남북한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였고, 이에 대하여서는 길림성 산하에 있는 연길시 원림처 許昌律회장이 북한측 의사를 직접 타진해 보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나아가 서울에서의 IFLA대회에 중국은 물론 북한측이 오브저버자격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帽兒山開發計劃 자문 및 협의 내용〉

우리가 자문하게 되어 있는 모아산은 연길시와 용정시 사이에 있는 모자같이 생긴 산으로 이 일대 약 1300ha 정도의 수림지가 계획대상지이다. 연길시와 용정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심도시들로서 이 일대에는 30만 이상의 조

선족들이 자치주를 형성하여 살고 있고 이 계획은 이들 우리 교포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었다. 모아산 자체는 야트막한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연길시와 용정시가 보이고, 독립군이 건너던 해란강과 평강벌 광활한 林海가 펼쳐진다.

연길시에서는 이 지역에 시민을 위한 위락공원이나 주제공원, 동식물원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었고,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이러한 구상의 타당성 여부와 새로운 제안, 그리고 다른 시설들에 대한 사례소개 등이었다. 우리는 본래 구체적인 도면화된 계획까지 제안하려 했으나 정식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현황측량도나 도시계획도 등 각종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 우선 자문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

우리의 답사결과로 볼 때, 연길시는 백두산 주변의 도시중에서 비중이 큰 도시로서 거의 모든 백두산을 등정하려는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일종의 등반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모아산의 개발은 연길시 주민들의 이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 줄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개방화정책으로 인하여 백두산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주제공원이나 적극적 놀이시설은 자연과 부조화되므로 배제하고, 백두산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동·식물원을 만들어 자연공원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이 대부분 한국인이므로, 한국인의 이곳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민속촌 및 민속박물관, 이민사나 일제항쟁기록을 볼 수 있는 전시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이들 시설내에는 관광객이 뜸한 동절기에는 연길시민들의 정적인 휴식공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공원 휴식편의시설을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中國 公園 및 庭園 답사결과〉

공원은 주로 장춘의 南湖公園과 몇개의 소규모 공원들, 연길의 人民公園, 도문의 두만강공원 그리고 상해의 노신공원(옛 홍구공원) 등을 답사하였다. 장춘의 남호공원은 220*ha*이나 되는 넓은 공원으로 중심부에 90*ha*규모의 호수가 있어, 도시속의 공원인데도 시민이 뱃놀이·수영·낚시 등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연길의 인민공원도 매우 넓고 다양했으며, 도문의 두만강공원은 두만강가 북한과의 접경지에 꾸며져 있는데 다양한 시민 휴식, 편익시설이 잘 가꾸어져 있었다. 윤봉길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노신공원 (노신의 묘가 여기에 있다)은 윤봉길의사의 흔적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호수와 정자 그리고 숲과 잔디가 잘 꾸며져 있었고 황포강가의 강변공원도 각종 초화류와 녹음수가 주변의 중심가로인 南京東路와 어울려 보기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대체로 호사스럽거나 거창한 시설은 별로 없고 풍부한 면적과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시민이 산책·휴식할 수 있는 소극적 이용시설 위주로 꾸며져 있었다. 전체적인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시설의 질이나 시공상태는 고급스럽지 않았고 장춘시에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공원도 있어 앞으로 개발의 소지가 많이 있었다. 장춘시 공원관계자의 말대로 "藝術水平 (水準)"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자연생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의 옛고적과 정원은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만리장성이나 明十三陵, 紫禁城의 위용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고, 공원으로서 頤和園의 규모와 사치, 개인정원으로서 蘇州의 獅子林이나 拙政園 그리고 상해 豫園 등의 절묘하고 변화무쌍한 경관들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다. 특히 명시대에 영조된 남쪽의 개인정원들은 청조에 건물이 들어서는 등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영조될 당시는 건물이 적고 山水景物이 많았다고 하는데 太湖石의 괴석, 석가산, 연못, 다리, 정자 등 중국 정원의 품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었다.

이러한 전통문화유산들은 막대한 부와 노력의 축적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나,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이를 경멸했고 문화혁명시에는 일부 파괴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개방화시대를 맞아 이것들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으니 아이로니가 아닐 수 없다. 옛것의 품격과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한 중국의 고민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위 "古爲今用(옛것은 오늘에 쓰기 위함이다)" 라는 실용적 사고방식이 점차로 사회전반에 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졌다. 과거의 호사스럽던 궁궐·전각들은 그 만큼 인민의 피와 땀을 흘린 흔적이긴 하지만, 그 성취의 결과로서 나온 고도의 예술성은 그러한 부의 축적이 전제가 되었으니,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없을까하는 古爲今用的 발상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

8월 11일 12시 청명한 하늘아래 영롱하게 반짝이는 민족의 영산 白頭山 天池와의 만남은 감동적인 것이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국 서남쪽의 경관들 – 西安, 桂林, 黃山, 泰山 등 – 을 볼 기회가 있다면, 중국에 대한 초기의 인상과 관념들은 바뀔 것이다. 그때까지 보다 상세한 중국견문기는 유보하기로 한다.

〈朝中日學術大會의 성공을 바라면서〉

1992년 IFLA서울대회에 "전통과 창조"를 주제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면서 우리 조경의 미래상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접촉과 유대강화는 IFLA대회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번 중국방문의 목적이 달성되어 내년의 학술대회가 성사되기를 빌며, 성사되는 경우 한국 조경학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